

일흔아홉 동갑 노스님의 동안거

송월스님(세수 79, 법랍 59)



“죽음도 두렵지 않은 두스님의 용맹정진”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젊은 시절 다하지 못한 수행을 여러 수좌들과 함께 정진하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심에 빠지기 쉬운 젊은 스님들에게 말은 경쾌이 되었다. 정월스님은 한 가지 말을 더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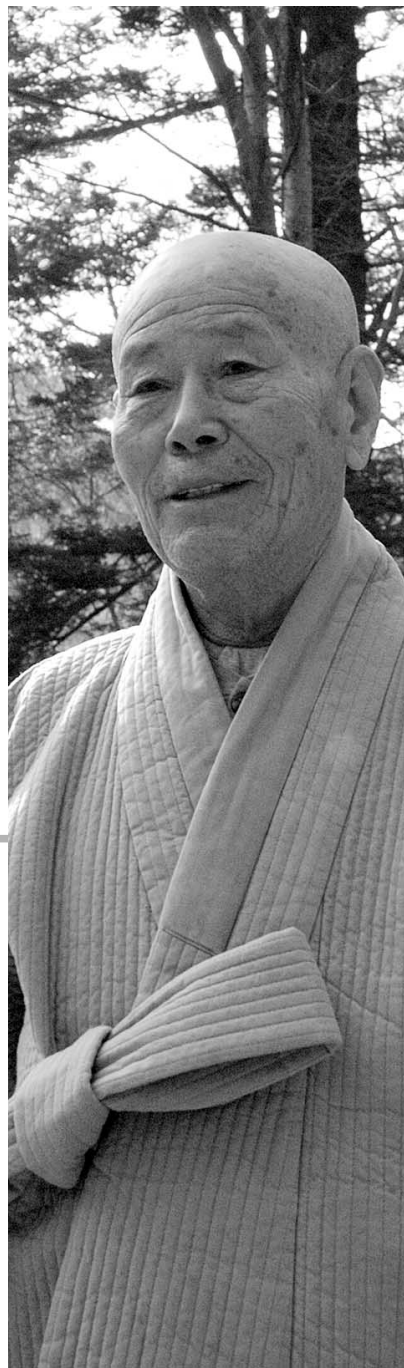
“목숨 내놓고 화두 일념 매달렸지”

“인욕 길러야 참된 수행 이뤄져”

자면서 12시간 동안 참선정진을 하는데, 어디 팔순 노인네에게 쉬었을 것 같아. 목숨 내놓고 화두 일념에 매달렸지.”

사로 해인사에서 출가를 했기 때문이다. 정월스님의 충고는 이어졌다. 젊은 스님들이 참선 수행보다 주지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정월스님(세수 79, 법랍 42)



우리결 우리 신도

나는 누구인가?...고민에 빈 가슴 치고

정토사 역사 함께한 고경순 신도회장

“탐내는 마음이 나올 때 나무아미타불! 성내는 마음이 나올 때 나무아미타불! 여러씩은 마음이 나올 때 나무아미타불!”

고 한다. 스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신도회 관리, 불사 등 모든 곳에 손길...

공부도 열성, 매일 1시간씩 불교서적 탐독

성한 활동을 하는 스님 뒤에는 고경순(66, 반야행) 신도회장이 있다. 고 회장의 불연(佛緣)은 깊다. 장흥 고씨 집성촌에서 자란 고 회장은 유교적 색채가 강한 집안임에도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손을 잡고 답양 백양사 등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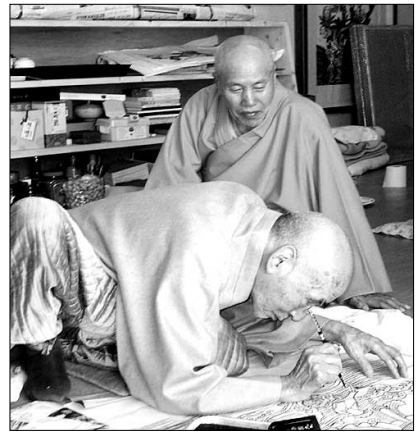
처하자 남편 손까지 빌려 공사를 했다고 주지스님이 귀띔한다. 고 회장이 열불 수행만 하는 것은 아니다. 능인선원 불교대학(19기)과 동국대 불교대학원(11기)을 졸업했을 정도로 교리공부도 열성이다.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록 추진

2004년 ‘국제관광축제’ 개최 통해 홍보 계획

중요무형문화재 13호인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등록이 추진된다. 강릉단오제는 사굴산문의 개산조인 범일 국사와 인연이 깊은 향토신제(郷土神祭)로, 음력 4월 15일 대관령 서당신인 범일 국사를 대관령 서당당에서 모셔와 강릉시내의 여성당신과

함께 제사지내면 시작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 과정 영상물 제작, 체계적인 보존계획 수립, 2004년 ‘국제관광민속축제’ 개최를 통한 홍보 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韓 만봉·中 관정’ 두 고승의 색다른 만남

13일 신촌 봉원사에서 한국 불화의 거장 만봉 스님과 ‘극락세계 유람기’로 한국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중국 고승 관정스님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스님은 “수행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을 모아 일체의 번뇌를 뛰어 넘은 곳에서 진리의 원음이 들리고 진실한 세계가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신도들과 함께 합장하고 있는 고경순 정토사신도회장(가운데).

능인선원 ‘불교청년 아카데미’ 개최

서울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18~22일 제5회 불교청년아카데미를 연다. 강지원 변호사, 구본일 불교TV 강사, 양형진 고려대 교수, 송위지 외국어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마지막날에는 미국인 현각스님(화계사)이 신세대의 대화에 참여한다. (02)577-5800 김원우기자

용문사, 향토박물관 설계변경안 전달

일주문 150m 앞 현대식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을 반대해 온 양평 용문사가 6일 설계 변경안을 양평군에 전달했다. 설계 변경안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건물 지하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지상 부분은 전통 한옥 형태를 띠도록 하고 있다.

태 1만불 봉안법회, 한국식 진행

1월 27일 태극 방목에서 열린 국립대학 및 불교대학 지원을 위한 1만불 봉안 대법회에서 한국 전통불교의식이 시연됐다. 태극 왕실지원으로 열린 법회에는 11개국 2천5백여 스님들이 초청되었고, 한국에서는 혜성(도선사 회주) 등 4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추천의 말

응천스님 정토사 주지

귀찮은 일일수록 먼저 실천

있습니다. 특히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후 절일을 집안일 챙기듯 합니다. 크지 않은 사람이지만 고 회장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 정토사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챙기는 고 회장님은 정토사의 주춧돌입니다.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허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시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초상령, 영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수시접수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 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뚜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